**신화의 이미지 (조지프 캠벨 / 살림)**

**세계 신화의 유사성**

왜 서로 다른 문명권의 신화와 종교에서 동일한 모티프들이 반복되는 것인가? 성서만 보더라도 이집트 신화의 도식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집트 신화에서 오시리스는 동생인 세트의 손에 죽는다. 오시리스의 아내인 이시스 여신은 처녀인 채로 아들 호루스를 잉태하고, 이는 성모 마리아와 예수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학자들은 어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상의 최초 형태가 근동 지역에서부터 기원한다는 사실을 출토된 많은 증거들을 통해 밝히고 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파라오의 항쟁은 이집트 신화에서 호루스 신과 세트 신의 항쟁을 연상시킨다. 헤롯 왕의 유아 학살을 피해 예수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하는 전설은 이집트 신화에서 이시스가 자신들을 죽이려는 세트를 피해 그녀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도망하는 이야기의 도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처럼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와 모세 이야기, 신약의 예수 이야기 등은 이집트의 오시리스-이시스-호루스 신화의 구조적 변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계 신화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모티프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죽음과 부활을 다루는 다수의 테마들, 신의 희생과 추방된 아기의 귀환 등 ‘원형(archetype)의 반복과 모방’이라는 테마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신화의 이미지』는 동서양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세계 신화의 원형을 집대성하고 있다. 고대 문명이 남긴 다양한 건축물과 조각, 도자기와 장식물 등을 통해 유럽과 근동, 아시아와 중앙아메리카의 신화가 어떻게 보편성을 띠고 또한 다양한 변형을 이루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이다.  
  
100권의 볼링겐 시리즈의 최종점을 찍다  
  
『신화의 이미지』는 20세기 최고의 신화 해설가라는 평가를 받았던 조지프 캠벨의 전 생애에 걸친 신화 연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볼링겐 시리즈(Bollingen Series) 100권을 마무리하는 책이기도 하다. 볼링겐 시리즈는 본래, 1941년에 미국의 부호이자 저명한 기부자, 자선 사업가로서, 특히 문화, 예술 분야를 적극 후원한 폴 멜론이 설립한 볼링겐 재단에서 출간되었다. 1969년에 볼링겐 재단은 고고학, 민속학, 문학, 비평, 신화학, 철학, 심리학, 종교학, 기타 관련 분야에 대한 책을 계속해서 출간한다는 조건으로 볼링겐 시리즈를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 넘겼다. 볼링겐 시리즈에는 칼 구스타프 융 선집을 필두로, 지성사적인 가치를 지니는 수준 높은 인문학 도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런 볼링겐 시리즈의 설립자인 폴 멜론과 메리 멜론은 100권의 볼링겐 시리즈를 마무리할 최종점으로 주저 없이 『신화의 이미지』를 선택했다. 아낌없이 수록한 도판과 세계 문명권의 신화에 관한 아름다운 탐색이 담긴 『신화의 이미지』는 출간되자마자 뉴욕타임즈 서평의 커버스토리를 장식하기도 했다.   
  
**우주적 꿈의 세계로의 안내**  
1부는 꿈을 통해 신화를 향한 문을 열어 놓는다. 꿈이 무의식적 내면세계에서 떠오르듯 신화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삶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자는 말한다. 꿈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그리고 우리에게 삶을 주는 위대한 여신들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어서 2부에서는 우주의 구조를 시공간적으로 탐색한다. 우주공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세계 곳곳의 성스러운 건축물들, 시간의 순환을 표상하는 달력들을 통해 세계의 3대 종교(불교, 기독교, 이슬람)를 완성시킨 유럽과 근동, 인도, 극동, 중남미의 신화를 여행한다. 3부에서는 연꽃으로 표현된 동양과 장미로 표현된 서양의 차이점들을 짚어 나간다. 하지만 그것들은 천상세계와 우리의 세계를, 저 너머의 삶과 이 곳에서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된다. 4부에서는 요가를 통해 신화 상징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는 동양적 접근방식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또한 서양적 형식이나 동양적 형식과 그 심리학적 해석방식의 관련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근 유럽과 고대 동양의 걸작품들로 지면을 채웠다. 이어지는 5부는 이 책에서 가장 정점을 이루는 부분으로,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희생된 신에 대한 세계 각지의 민속과 문자기록들에 대한 비교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살해되는 신’이라는 테마에서 출발하여 ‘희생’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을 비교해 가며, 결국 자아를 뛰어 넘는 것으로서의 희생, 특히 자발적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마지막으로 6부에서는 꿈이자 삶으로서의 신화 세계로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깨어남’이 이루어진다는 역설적 신비를 고찰한다.  
우리는 책을 펼치는 순간 비슈누 신과 함께 잠든다. 그리고 내내 세계의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는 잠에서 깨어난다. 하지만 꿈을 꾸고 난 당신은 더 이상 꿈꾸기 전의 당신이 아니며, 당신이 바라보는 지구는 꿈꾸기 전의 지구가 아니다. 깨어나서 우리는 우리가 신화 속을 살고 있음을, 꿈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미지가 중심이 되는 신화 읽기**  
『신화의 이미지』의 옮긴이 홍윤희 선생은 옮긴이의 말에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위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 책에서는 글보다 그림을 좀더 더디게 ‘읽어’ 주십사하는 것이다. 캠벨의 주저(主著) 중에서는 거의 최종판이라 할 만한 『신화의 이미지』는 그가 집필한 어떤 책보다도 체제가 자유롭다. 하지만 또 어떤 책 못지않게 조화롭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온 때는 캠벨이 70세가 되던 해. 칠순이면 공자(孔子)께서 “마음이 가는대로 좆아도 정도에 거스름이 없다(從心所慾不踰矩)”고 하신 나이가 아닌가. 캠벨은 그야말로 마음 가는대로 그림을 배열하고, 그림 가는대로 펜을 놀린 것 같다. 굳이 논증하려 하지 않고,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는 그의 스타일은 이 책에서 정점에 이른다. 그리고 이야기는 언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혹은 언어가 떠난 자리에서 이야기는 더 풍성하게 들려올 수 있음을 『신화의 이미지』를 통해 보여준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그가 수록한 그림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리 잡았는지가 느껴진다. 숨은그림찾기 하듯 그림을 찬찬히 공들여 읽다보면 이 책 곳곳에 숨겨진 캠벨의 귓속말이 들려올 것이다. ‘당신이 걸려 넘어진 곳에 당신의 보물이 있답니다.’ (출판사 서평)

**위대한 개츠비 (스콧 피츠제럴드 / 열림원)**

**1999년 모던라이브러리 선정 ‘20세기 100대 영문학’ 2위   
2005년 「타임」지 선정 ‘20세기 100대 영문 소설’   
순수한 사랑, 희망에 대한 끝없는 애착**   
  
개츠비는 야심만만하지만 가난한 젊은 중위로 자신과는 출신 배경이 전혀 다른 상류사회의 여성 데이지와 꿈 같은 사랑에 빠진다. 전쟁에 참전하면서 데이지와 헤어지게 된 개츠비는 다시 그녀를 되찾으려는 일념으로 범죄를 통해 막대한 부를 이룬다. 그리고 데이지를 찾기 위해 자신의 저택에서 매일 성대한 파티를 연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저택을 찾아와 화려한 파티를 즐기게 되고, 이 소설의 화자인 닉 캐러웨이도 그 파티에 참석한다. 개츠비는 닉 덕분에 데이지를 다시 만나, 과거의 사랑을 되돌리려 한다. 하지만, 결국 개츠비는 사랑과 꿈을 잃은 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위대한 개츠비』는 20세기 가장 뛰어난 미국소설로 꼽히며, ‘문학사에 남을 걸작’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스콧 피츠제럴드의 장편소설이다. 스콧 피츠제럴드의 자전적 경험이 곳곳에 녹아 있어, 1920년대 ‘재즈 시대’라 불리던 시기의 화려한 면모와 그만큼 속물적이었던 미국의 사회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대한 개츠비』를 쓰고 있던 몇 달만큼   
내가 예술적 양심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있던 시기는 없었다.   
 - F. 스콧 피츠제럴드**   
  
1차 세계대전 이후 아메리칸 드림은 이미 허황된 말이 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사회는 환멸에 빠졌으며, 부에 집착하는 허영이 팽배해 도덕적 실패를 겪게 된다. 소설 속 개츠비는 이미 과거의 신화가 된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 시대착오적 생각을 품고 있다. 그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돈으로 되돌릴 수 있을 거라 믿고 공허한 꿈을 좇는 인물로 그려진다. 개츠비는 절제와 근면으로 입신출세를 지향하는 고전적인 인물상을 목표로 삼고 있었지만, 그 노선에서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출세한 속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위대한 개츠비』의 비극성은 여기에서 비롯되며, 바로 이 소설이 성취한 지평이 놓이는 곳이 된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필독서가 되고, 해마다 수십만 부씩 팔리게 된 것은 그가 죽은 뒤였다. “불후의 장편을 쓰고 싶다”는 피츠제럴드의 소망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셈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그의 생전에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피츠제럴드를 ‘과거의 유행 작가’로 간주하여 역사의 어둠 속에 내팽개쳐둔 채 거의 돌아보지도 않았다. 알코올 의존증, 젤다의 발광과 투병, 그리고 외동딸의 양육이라는 무거운 짐을 혼자 끌어안고 만성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그럼에도 문학적 야심과 문학적 양심을 잃지 않은 채 스콧은 몸을 깎듯이 계속 소설을 썼다. 1934년에 그는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개츠비』를 쓰고 있던 몇 달만큼 내가 예술적 양심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있던 시기는 없었다.” (출판사 서평)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주현성 / 더좋은책)**

**이 시대의 새로운 요구와 열망, 인문 지식의 힘**   
  
최근 대기업 채용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토익과 자격증 등에 많은 비중을 두던 과거와 달리 ‘열린 채용’ ‘파격 채용’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스펙 대신 인문 지식에 대한 소양을 묻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사회 초년생뿐만 아니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의도 열리기만 하면 만석이 되는 등 대한민국은 지금 인문학 열풍으로 가득하다. 인문학 강사들의 강연이 인기를 얻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독자들은 ‘응답하라, 인문학’을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왜 이토록 인문학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에야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문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었다. 오래 전부터 사회 전반의 기초 지식과 다양한 안목을 제공해왔으며, 문화 콘텐츠가 산업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그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왔다. 이는 인문학이 문화 트렌드와 콘텐츠들을 더욱 잘 이해하고 재생산해내는 기초 해석 코드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몇 해 전부터 크리에이터들을 중심으로 광고나 홍보 전략에서 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에 이르기까지 인문학을 접목시키거나 인문학에서 힌트를 얻으려는 노력들이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의 실용성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인문학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인문학에 갖는 기대는 단순한 마케팅 그 이상인 것 같다. 작금의 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일면서 기능적인 해법보다는 뭔가 본질적인 해법을 찾아 나서려는 기업들이 인문학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효율성을 넘어선 혁신적 발상을 찾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심도 깊은 안목과 이해가 필요하고, 인문적 시각의 접근이야말로 그에 가장 적합한 접근법이 되어줄 것이라 믿는 것이다.   
  
**막막한 인문학,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이렇듯 기업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고객의 요구까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통한 유연한 사고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인문학은 그리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인문학은 짧은 시간에 섭렵하기도 힘들뿐더러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조금이라도 심도 있는 인문 지식을 펼쳐볼라치면 꽤 다양한 분야의 기초 상식이 있어야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그동안 많은 교양 입문서가 나왔지만 대부분 한 분야의 지식에만 치우치거나, 단순한 용어 설명과 흥밋거리만을 나열하기에 바빴다. 인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인문 지식에 욕심을 내는 초심자들이 시작부터 힘겨운 분투를 해야 했다.   
이런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더좋은책에서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을 내놓았다. 이 책은 **심리학, 회화, 신화, 역사, 철학, 글로벌 이슈** 등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인문 교양의 핵심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어렵지 않게 인문 지식들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놓고 있다. (출판사 서평)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